



죽비와 목탁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장병 마음 위로할 손길 되길

얼마 전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또 한 명이 자살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달 새 한 부대 내에서 2번이나 자살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부대로 달려온 부모님들로부터 가정의 형편까지 들으니 떠난 이들의 고충이 느껴졌다고 한다.

양부모님은 암을 앓고 계셨고 집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쌓여 가정경제는 이미 파탄경계에 이르러 있었다. 또 다른 사병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 있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오열했다.

세상을 등진 두 사병 모두 몸은 군대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집안 걱정이었을 테고 입대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청년은 부대에서의 말 못할 고충으로 가슴앓이를 해왔던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한마디, 작은 손길, 따뜻한 격려가 아쉽던 때에 또 한통의 전화가 왔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박호석 단장(전 농협대 교수)이었다. 올해 7월 결성된 군포교지원단이 대별된 강원지부 출신을 중심으로 20명의 포교사를 양성, 포

교기반이 약한 강원 일대 중·동부전선 전방 부대의 법당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된 포교사들은 교직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돼 포교의 다변화와 함께 군포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박 단장의 목소리에겐 원력이 담겨 있었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바뀐다는 군대에서 불교계의 핵심 인재들이 모인 대별원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이 군포교를 위해 앞장선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지관 스님은 33대 차기 총무원장에게 "수행도 중요하지만 대사회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다면 (중생구제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본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조계종이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또, 19일 발표된 승가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스님들은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승려의 역할을 사회적 참여를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곧 다가올 겨울과 새로운 한해 불교계가 참여해야 할 사회 문제는 산재해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관세음보살의 대자비를 전하는 원력이 가을바람을 타고 스님들에게도 전해지길...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이 '현대불교'를 이룩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다수 지지로 강력 종책 집행

### 소통의 리더십 예상... '포용'의 총무행정은 과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10월 22일 자승 스님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강 구도로 지속된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다득표로 드러났듯 종단 운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총회와 교구본사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차기 집행부의 강력한 종책 집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 모금의 물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겠다"는 어록으로 총무원장에 임하는 자세를 밝힌 자승 스님. 올해로 세랍 55세인 스님은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세랍이 77세인 것에 비하면 무척 젊다. 총무원장이 젊어진 만큼 카리스마의 리더십에서 소통의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이다. 집행부의 연령대도 낮아져 대사회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승 스님은 23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총 25명 중 참석한 23명의 원로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은 직후 "젊은 만큼 더욱 중정 예하와 큰 스님들을 잘 모시고 종단 중흥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대정부 활동에 대해 "향



23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 장종신 스님이 제33대 총무원장 인준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박재만 기자

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소통'의 정치를 예고했다.

각 교구본사의 압도적인 지지가 종책 집행 등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과나 개인 이익보다 종단발전이란 명제 아래 종단을 운영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운영기조를 밝혔다.

이렇듯 추대에 준하는 '화합'의 분위기에 당선된 자승 스님은 '소통'을 대명사로 삼아 △교구본사 특성화(예마 사찰 및 타운 선정 등) △불교제도 정비(불교문화유산법 제정 등) △종단 재정 확보(재정사업부 운영 등) △전법 및 포교활동 강화(신도시 거점포교사찰 설립 등) △불교문화보존(황룡사, 미륵사 복원사업 추진 등) △한국불교 위상강화(해외교구 신설) 등 13대 종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13대 종책 세부사항 중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중진 스님 등의 고견을 듣는 종단발전자문위원회와 BBS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을 주축으로 한 '불교종합미디어' 설립 등의 종책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종책 집행을 위해 향후 '포용'의 총무행정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나온 기권 6표, 무효표 14표 등 사표에서 드러났듯 득표에 소외된 중도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다. 또 11월 5일 예고된 정기중앙총회에서 종책 모임들이 각 종책 사업별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지에 대한 여부도 '소통'의 정치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e@buddhapia.com

###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

1954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봉암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수원 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자승 스님은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냈다.

제10대 중앙총회의원으로 종단 입법 활동에 매진한 스님은 11대 총회 사무처장, 12대, 13대, 14대 의원을 연이어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제14대 전반기 총회의장으로선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총회를 원만히 이끌었고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님의 대사회적인 역량은 활발한 복지 사업과 포교활동에서 드러난다. 자승 스님은 97년부터 5년간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아 지역 복지사업과 불교복지에 대한 원력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을 세웠으며, 지역 언론 '과천21'을 발행하는 등 지역불교계와 언론미디어 발달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04년부터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서 종단 인재발상에 매진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종단의 불교단체, 불교학자, 청년,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전국 규모의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 출간하는 '은정학술총서' 간행은 불교학계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중앙총회 총책모임 화엄회를 이끌며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활동 등 해외구호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수행·포교로 원용살림 임했어"

#### 30일 퇴임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10월 30일 퇴임을 앞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9일 서울을 정릉 경국사에서 4년 임기 동안의 소회와 차기 집행부에 대한 당부를 밝혔다.

지관 스님은 "기한 상관없이 맡은 동안 충실히 하다가 보니 시간이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임기 내 불교계 최대 이슈였던 종교편향과 8·27법 불교도대회에 대해 스님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회향된 데는 모든 국민이 상대종교를 존중하는 정신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고사를 표했다.

지관 스님은 차기 집행부에 대해서는 "딱히 당부해 부담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후임 총무원장이 '화합'으로 대화에 앞장서고 '구제중생'이라는 대사회적인 책무에 더욱 발 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소인 '무우'(無憂)정사 앞에서 "길도 오르내림이 있고, 바다에도 물결이 일 듯, 살아감이 어찌 수평으로만 되겠는가"는 한마디로 임기 내 수많은 고뇌를 털어버린 지관 스님.

지관 스님은 끝으로 "퇴임 후 가산불교대사전 완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조계종 직영서점 등 서서포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상구보리 보다 하화중생을...

### 불학연구소, 19일 '조계종 승려의식생활 조사 결과' 발표

현대사회에서 승려는 "상구보리(上求菩提, 27.3%)보다 하화중생(下化衆生, 36.1%)에 치중해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불교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55%),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불교 운동이 효과가 있을 것 (60.4%)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19일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 의식생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님들은 한국불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회

적 과제로 신뢰회복(50.1%)과 종교편향 극복(23.7%)을 꼽았다.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외적으로는 불교의 정체성 강화(54.2%)와 종교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23.4%)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내적으로는 응답자 다수가 승려의 자질향상(29.7%)과 출가정신 회복(20.8%)을 지적했다.

특히 스님들은 승가의 사회참여 정도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승려 개인의 자질향상(29.4%)과 양질의 승려교육(28.9%)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갖고 28일 오후 2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강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박수호 고려대 외래교수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승가상의 모색'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승가의 리더십 고양을 위한 교육 방안'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 사회의 종교갈등과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같은 날 최종 보고서 발간도 예정됐다. (02)2011-1818

조종섭 기자

봉

## 韓國佛教太古宗 第24代 總務院長 就任式

행

귀의삼보하옵고,

본종 "第24代 朴印空 總務院長 就任式"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원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28일 오전 11시 ◆ 장 소 : 봉원사 삼천불전
- ◆ 연락처 : 총무원 02)739-3450~4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호) / 봉원사 02)392-3008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2009년 10월

共同準備委員長 姜青峰, 閔法顯, 李華鏡